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의 본 1970년대 이후의 제주도시 건축의 경향과 한계

김 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후 지금도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적 확립의 미흡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러한 이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건축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입면구성이 다소 독특하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79년 1월8일자 타임지의 표지에 근대건축의 정통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필립 존슨이 외투를 걸치고 AT&T의 건물모형을 안고 있는 모습(그림1)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입구부의 기둥과 경사지붕, 그리고 입면의 세부형태는 고대건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건축적 요소를 그대로 인용한 듯한 AT&T는 확실히 역사주의적인 형태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매스를 구성하고 있었고 1970년 초기부터 거론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¹⁾.

본고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의 도시건축문화의 특성과 그 현상(現狀)에 대하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2. 건축과 도시디자인에 있어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상이(相異)성

2-1 모더니스트의 건축 및 도시사상

계획과 개발은 대규모로 거대도시 전반에 걸쳐 기술적인 합리성을 갖춘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비장식적 기능주의적 외관(국제주의 양식)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이는 2차대전후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 직면하였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경험하였던 대량생산이나 계획을 통해 병대한 재건 및 재조직 프로그램에 착수하려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이 도시 구조의 재건과 재형성 등이었다.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사상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을 주도사였던 대표적인 건축가들은 르 코르뷔제, 미스 반 데어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들이며 이들은 국제주의 양식(산업화된 건설 시스템, 합리적 계획 절차)이라고 불리는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창시자이자 활동가로서 그 활동무대가 근대건축가 국제회의(CIAM 1928년~1956년)이며 기계적인 도시질서 창조를 주장하였다. 1956년 짧은 급진주의자들은 팀텐(TEAM X)에 의해 막을 내렸다.

1) 谷川正己、中山章、제3건축연구회 역(1987), 建築名句와 近代建築家, 기문당, p134

국제주의 양식은 관료제 국가기구의 표현도구로 여겨졌으며, 시카고 트리뷴 빌딩이나 록펠러 센터와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계급권력 예찬의 역사로 표현되고 있다.

2-2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등장 배경²⁾

• 첫째: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

현대 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상적인 공간·시간의 경계가 무너졌으며 이것은 신국제주의(neo-national style)를 만들어내고 도시나 사회내부에서 장소나 기능, 사회적 이해에 바탕을 둔 내면적 차별화가 거세게 일어나게 하였다. 교통 및 통신기술은 공간상의 사회적 작용을 매우 차별적인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건축 및 도시디자인은 세계2차 대전 직후보다 훨씬 자유롭게 공간적인 형태의 다양화를 추구할 새롭고도 폭넓어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도시형태의 분산, 이심, 타 집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둘째: 신기술(특히 컴퓨터의 모델링)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량 생산을 대량 반복과 결합시켜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엄청나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담아내어 거의 개인별 상품을 유연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건축재료들, 특히 수많은 전통양식의 모조품을 매우 값싸게 조달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2-3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 (중요성)

레이터 모던건축은, 재료 및 구조의 명쾌함과 진실성, 건축가의 책임, 진리, 객관성을 강조한 영국의 「부르탈리즘(Brutalism)」, 급속히 발전한 공업주의에 힘입어 기계부품을 유지하기 쉽도록 미리 정해진 서비스 년한에 맞추어 설계하는 원리는 메타볼리즘(Metabolism : 생물학의 물질대사 혹은 신진대사), 그리고 권위적인 기준가치체계를 부정하고 현대사회의 대중예술 성격을 강조한 「아키그램(Archigram)」, 건축물 사용자 자신의 활동과 사회형성을 위한 유연성이 있고 움직이는 건축을 주장하였던 프랑스의 「게암(GEAM : Group d'Etude d'Architecture Mobile, 움직이는 건축연구그룹)」의 흐름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요컨대, 레이터 모던건축은 국제주의적 양식이 추구하였던 획일성과는 달리 다양성과 감응성이 주장되었다.

레이터 모던건축 이후, 1970년대에 등장한 이른바 포스트모던(Post-Modern, 탈 근대화) 건축은 인간적 세계관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서 근대건축의 이념과 사상을 거부하고 현대사회가 가지는 다원적 현상을 소화시키기 위해 일반대중과 의사전달을 시도하려는 움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더니즘의 메타이론이 간과하였던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차이와 타자성에 대한 주목을 끌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터 모던은 「다원주의」 「대중주의」 「맥락주의」를 주창하며 토속적인 문화를 존중하며 역사적 양식의 인유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현대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레이터 모던에서 이어지는 하이테크(High-Tech)는 현대사회의 공업기술의 역



그림1. Time지(誌)의 표지에 등장한 필립 존슨 모습(1979.1.8)

2) 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 박영민 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pp109~110

량을 표현영역으로 확대, 도입하여 건물이 현대산업사회의 미학적인 외관을 가지도록 하였다.

하이테크는 포스터 모던건축과 함께 현대건축을 주도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바라본 제주 도시건축 탐론

3-1 우리나라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아시아지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일본에서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대규모화, 초고층, 복잡화로의 흐름에 있어서 금속적이고 교조적인 근대건축에 대한 한계성과 함께 새로운 운동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주도한 건축가가 이소자키 아라타이(磯崎 新)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소자키는 건축을 입방체와 원통형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속에서 자연적인 건축형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에도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서 오히려 역으로 과거 역사속에 존재하여 왔던 건축형태를 인용하여 순수한 기하학적 건축형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대표작이 쯔쿠바센터(1983년)로서 일본에서의 포스터 모더니즘적 경향의 건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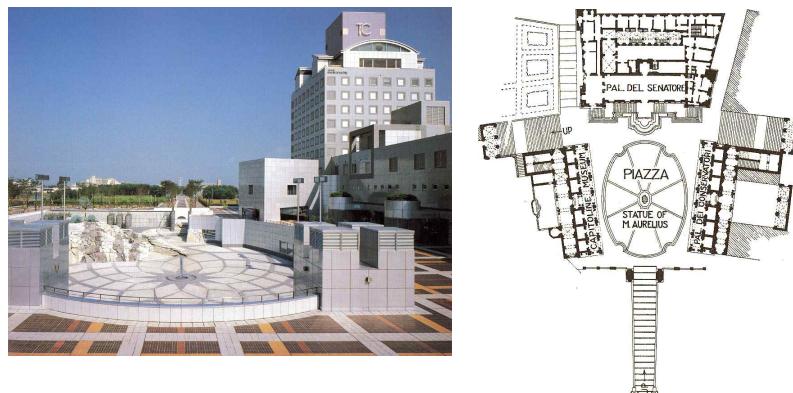


그림2. 로마의 카피톨(오른쪽)을 모방한 이소자키의 「쯔쿠바 센터」의 광장(왼쪽)

우리나라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은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적 양식, 즉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서 발생되는 소비의 다양성, 대량소비문화의 경향은 자연스럽게 건축양식에도 영향을 주어 단순한 상품진열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화점, 호텔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전시관, 수영장, 볼링장과 같은 종합건물로서의 공간설계로의 변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건축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되는 경향이 짙다³⁾.

특히 1980년대 군부 통치라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은 일반 대중을 자극하고 관심을 어느 한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즉 그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일종의 스펙터클(spectacle, 볼만한 것, 광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술의 전당(김석철, 1988), 독립기념관(김기웅, 1987),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 1986)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다분히 정치적 배경 속에서 포스트

3)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5), 공간과 사회, 한울, p139

모더니즘 이념과 결합된 건축양식이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의 절충이나 고전적 의미의 중시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대중화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공공건축물로서 마치 양반의 갓 모양과 같은 건축형태를 한국의 전통성으로 직설적 언어로 강하게 표현되었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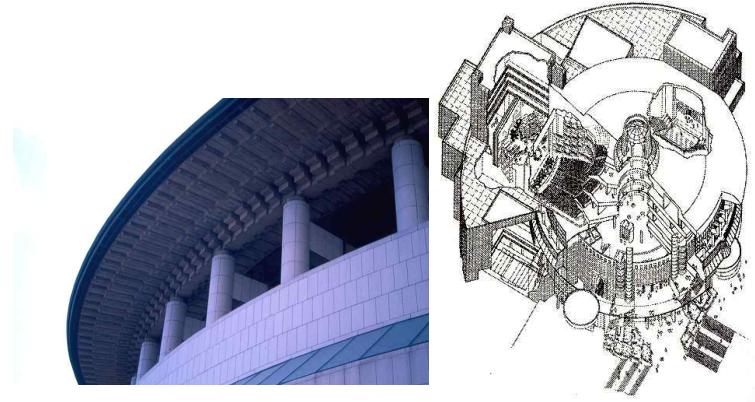


그림3.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외관 및 액소노메트릭(오른쪽)

독립기념관 역시 기와지붕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서 전통양식의 절충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그림4).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도 봉화대와 성곽의 이미지를 그대로 건축형태의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그림5).

한편으로는 급속한 자본의 축척으로 인해 형성되는 스펙터클 또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해 수반되는 무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의 화려한 백화점의 건축양식과 구매를 자극하는 장식물, 대학로의 도시 풍경, 그리고 주거공간의 고밀화, 고층화 양상이 그것이다.



그림4. 독립기념관



그림5. 국립현대미술관

3-2 그리고 제주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

그렇다면 제주에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그리 간단히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역적 차이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있겠으나 제주의 개발, 발전양상이 대부분 중앙정부 혹은 외부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히 육지부의 건축적 양식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개발은 1961년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이 시기에 최초로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는 등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주도를 관광지개발에 정책 중심을 두고, 관광지로서의 제주개발이 시작되었는데, 60년대와 70년대의 관광지 개발붐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 지역민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 된 것이었으며, 지금의 시점(視點)에서 본다면 건축의 지역성·향토성 상실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건축물양식은 기능위주의 보편적인 스타일의 건축양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었다. 단순한 기능과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기계 은유, 대량 생산적 이념, 그리고 일괄된 형태구성은 확실히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의 특징인 의미의 다중성, 지역적 전통의 해석과 이해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건축양식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의 도시건축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은 「신제주」 도시계획의 수립과 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발정책의 드라이브에 힘입어 「신제주」에는 비교적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70년대의 무비판적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 지역적 전통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건축양식이라는 큰 흐름에서 살펴본다면, 당시의 건축양식은 의미의 다중성, 지역적 전통의 이해, 정면성과 대칭적 경향을 중시하였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크게 2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온유하고 포근함을 표현하는 완만한 곡선의 지붕 형태와 같은 제주건축의 언어성을 모사(模寫)한 직설적인 건축형태를 추구하는 분류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의 흐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전통초가의 재료와 현대적인 건축 재료와의 조화, 송이벽돌과 현무암 등의 다양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의 삶과 정신, 그리고 지역성을 표출하려는 의장을 중시하고자 하는 실험적 건축양식의 경향이다.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다원주의,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포스터모더니즘의 경향 속에서 제주건축은 주로 형태적 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성, 향토성에 대한 논의 한계성과 실천적인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제주모습은 형태뿐만 아니라 삶을 담는 공간 속에 있으며, 공간적 표현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1997년 제주도 건축사협회 주최의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 1999년 제주지역의 「건축문화의 해」 행사를 통해 문화의 한 장르로서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제주의 경관문제를 다룸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제주건축의 이해를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90년대는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 천년에 들어서 제주는 지역성이나 향토성과 같은 부분적이며 지역적인 건축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 4·3사건, 정상의 집, 컨벤션센터,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시도되었다. 이들 공공건축물은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배경으로 추진되었던 예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추진배경이나 사회적 이슈 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스펙터클(볼거리)화되어 건축계와 지역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현상공모에 국내 유명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실제 내용적으로는 상업적 성향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양식화되어 버린 듯한 경향이 없지는 않다.

특히 4·3기념공원은 추진과정에서부터 공원화, 유료화라는 사업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4·3사건이 지닌 본질적인 화해와 상생의 추구가 아니라 상업자본적 발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건축양식은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중시하였던 의미의 다중성 내지 지역적 전통, 정면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정치적 행정적 문제 등으로 인한 현상설계의 문제점과 4·3사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실감케 하였다.

제주의 도시공간 역시 다양성이 부족하다. 건축물은 생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관을 이루며, 이러한 건축물들의 집합은 도시나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게 되며⁴⁾, 외형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역사적 깊이를 묵시적으로 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하다.

제주의 현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도로체계는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건축물은 지역성이 결여되어 있어 무표정하고, 게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는 문화적 이벤트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도 녹색도시 공간에 어울리는 세련된 건축물,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닐 수 있는 가로체계의 구축을 위한 많은 고민이 요구될 때이다.

4. 맷음말

순간성이나 혼돈(Chaos) 같은 느낌들과 한결 같이 뒤섞여 있는 혀구와 분절화, 꿀라쥬, 절충주의는 아마도 오늘날 건축문화 및 도시디자인 관행을 주도하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이나 문학, 사회이론, 심리학, 철학과 같은 다른 영역의 실천과 사고들도 이와 상당부분 비슷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 역시 대중주의, 팝아트화, 다양성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성향은 서구적 건축요소의 무절제한 수용과 변제된 입면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결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와 70년대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 최근에는 아방가르트 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해체주의라는 운동의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념을 부정하면서 시도된 운동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수용하는 것 또한 적지 않다. 사실 우리들은 모더니즘을 단순히 기능주의적 관점으로만 보려함으로서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대건축을 주도하였던 르꼬르뷔제,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 데어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알바 알토 등의 거장들의 작품들이 아직도 건축가들의 입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건축 작품이 가지는 기능성 이외의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건축운동이건 근본적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튼튼한 건축물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상호 관입적 입장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전통 문화적 통합성이 필요할 때이다. 제주의 문화적 바탕과 인간중심(대중중심)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현대건축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이는 곧 현대화된 건축적 전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4)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5), 공간과 사회, 한울, p127

1. 김태일(2005), 제주건축의 맥, 제주대학교출판부
2.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1999), 한국건축100년, 도서출판 피아
3. 다니엘 팽송 저, 정진국 역(1999), 건축과 근대성, 영림카디널
4. 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 박영민 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5. 이준표(2000), 모던과 포스트모던, 도서출판 계신
6. 찰스 젱크스 저, 신현수 역(1995), 포스트모더니즘(20세기 미술운동 총서25), 열화당
7. 파울로 포토개시 저, 최두길, 선진 역(1989),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의 동향, 태림문화사
8.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5), 공간과 사회, 한울
9. チャールズ・ジエンクス 著、竹山實 譯 (1978) ポストモダニズムの建築言語、a+u